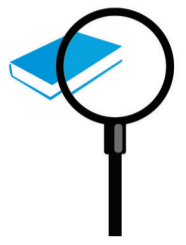


만남부터 이별까지... 서투른 사랑에 관한 모든 것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배정원의 사랑학 수업

배정원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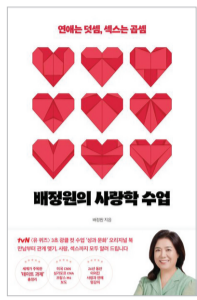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대부분 '행복'이라고 말할 것 같다. 틀리지 않다. 그러나 사랑과 행복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역사 이래로 가장 보편적인 주제는 사랑이었다.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전해오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됐다. 오늘날의 사랑 이야기 또한 다양한 방식과 버전으로 콘텐츠화 될 것이다.

사랑도 연구와 탐구의 대상이다. 어느 분야든 '학'이 붙으면 연구와 검증이 거쳐 체계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랑을 주제로 한 학문이 있다면 '사랑학'이 아닐까 싶다.

성상담 전문가, 성칼럼니스트 배정원이 펴낸 '배정원의 사랑학 수업'은 이색적인 책이다. 제목 자체부터 흥미롭다. 한편으로 평소 잊고 있던 사랑이라는 주제를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기도 한다.

저자는 세종대에서 실전 연애와 성 지식을 다룬



'성과 문화'를 가르친다. 이번 책은 그 강의의 단행본 버전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주요 일간지 홈페이지에서 성상담 게시판을 운영했으며 방송 등 언론 매체에 출연해 성전문 패널로 활동했다. 대학에서 개설한 '성과 문화'가 오픈 3초 만에 마감되는 것은 그만큼 강의가 인기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책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수업의 핵심 내용을 엮었다. '연애는 덧셈, 섹스는 곱셈'이라는 부제가 눈길을 끄는데, '사랑학 수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의미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요즘의 청년들이 사랑과 연애를 자주 뻘썩으로 계산하는 게 나는 안타까웠다. 청춘은 어느 세대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겁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미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과 시간, 감정을 소비하는 사랑과 연애를 미루거나 포기하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번 책을 쓰게 된 이유다. 그런데 왜 '연애는 덧셈, 섹스는 곱셈'이라고 규정했을까. 저자는 "사랑은, 연애는 덧셈 그 이상이다. 사랑은 세상에 기증하는 나에게 다시 시작할 기운을 뽕뽕하게 충전해주며 나를 일으킨다"며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섹스는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사랑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곱절로 만들어주는 곱셈'이라고 부연한다.

저자는 연애에 서투른 젊은 청춘부터 사랑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까지 배려를 했다. 다루고 있는 분야도 만남을 비롯해 관계, 섹스, 이별, 건강 등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책은 모두 5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데이트 실전 수업'은 연애 상대를 찾는 법부터 피해야 할 사람의 특징, 데이트 할 때 태도 등을 다룬다. 저자는 데이트 수업에서 배워야 할 태도 중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말한다. '경청'이란 '답정너'가 아니라 상대가 어떤 생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 입장이 돼 들어보는 것이다.

2부 '관계 수업'에서는 연애 중에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싸움, 애착, 질투 등이 다뤄진다. 저자는 힘들다는 이유로 이별을 유도하는 것은 현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쉽지 않지만 결정했다면 헤어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남녀의 섹스 문제를 다룬 3부 '섹스 수업'은 다소 도발적인 주제들도 있다. '내 성기를 보셨나요?', '남자와 여자의 같은 듯 다른 섹스', '지금도 여전히 혼전순결 고민' 등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이 다뤄진다.

4부 '건강수업'은 섹스 전 책임에 대한 문제다. 피임이나 허니문 베이비 외에도 준비 없는 섹스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마지막은 마음에 대한 부분이다. 5장 '관점 수업'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의 의미에 중점을 뒀다. 특히 성에 대한 관점이 담겨 있어 한번쯤 새겨들을 만하다.

저자는 "청춘은 좀 더 실수하고 실패해도 되는 시기이다. 사랑도 인생도 여러 방향으로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자기다운 방법을 찾게 마련이다"고 말한다.

<행성B·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화가가 된 혁명가

남진현 지음

한국전립미술가협회 회원이자 뉴욕 Van Der Plas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남진현은 이색적인 이력의 소유자다.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지만 학생운동으로 중퇴를 했다. 여러 기간 우여곡절의 삶을 살다 지난 2008년 미술공부를 시작해 사람의 얼굴을 모티프로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작품 '그리스인 조르바'는 인간의 다면성, 복잡성, 모순성을 표현한 것이다. 화면을 기하학적으로 분할해 각 선들의 만남과 충돌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작가에게는 '구성주의' 양식의 첫 작품으로 인간의 분노와 슬픔 등을 담았다.

남진현 화가가 펴낸 '화가가 된 혁명가'는 '혁명가가 화가가 되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사노맹과 관련 8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이후 붓을 든 화가가 된다. 삶을 돌아보는 그림과 글이 주는 무게와 여운이 만만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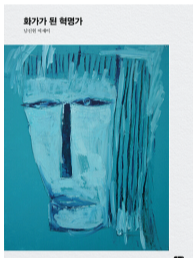
책은 모두 30개의 그림과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의 삶과 견주어 보면 작품 하나하나가 이야기이며 한 개인의 역사다.

지난 2012년 전시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1995년 제주'는 젊은 시절 8년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던 시간을 담은 작품이다. 저자는 가장 흑독했던 시절을 푸른색으로 묘사했다. "두 눈은 고통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초점을 잃었다. 그래도 서늘한 빛을 내며 앞을 바라보고 있다. 긴 코는 사색의 시간인 듯 고뇌의 깊이인 듯, 거친 머리카락은 마치 쇠창살 같구나."

한편 전우용 역사학자는 "그의 그림에는 흑독한 세상을 살아온 그와 그의 시대가 담겨 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그가 살아온 삶의 총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평한다.

<빈빈책방·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에게 남은 시간

최평순 지음

'인류세'라는 말이 있다. '인류세'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전 지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새로운 과학 용어다.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고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인간의 문명과 자본주의로 인해 생겨난 환경훼손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현재 인류 이후의 시대를 인류세라 칭한다.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시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환경 다큐멘터리 PD 최평순이 펴낸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다큐 제작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며 만난 인류세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1장 '소행성은 쳐다보지 마!'에서는 과학사회학자와 심리학자를 만나 기후 위기와 과학 지식에 무관심해지고 불신하게 된 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장 '대중의 언어'에서는 한국 언론이 기후 위기 뉴스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자, 언론학자, 정책학자에게서 듣는다.

3장 '이슈화의 최전선'에서는 그린피스 선박에 올라 선원들과 돌고래를 취재하는 영화감독, 조류 유리창 충돌을 기록하는 사람들, 기후 우울 만화를 그리는 웹툰 작가 등 기후 위기를 대중에게 알리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4장 '인류세 시대를 살아가기'에서는 사회학자, 과학기술학자, 과학철학자를 만나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2030년의 지구, 2040년의 지구는 더 가혹하게 인류를,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공유해야 한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며 다가올 미래를 마주하자.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외면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해나무·1만75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어느 작가의 오후

F. 스콧 피츠제럴드 지음, 서창렬 외 옮김

'위대한 개츠비' 등으로 알려진 미국의 소설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는 1929년 대공황 이전까지의 화려한 미국의 단면을 담은 스타 작가다.

이에 비해 그가 1930~40년대를 그린 작품들은 잘 소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전까지 보여줬던 화려한 삶, 작품들과 관련해 음울한 분위기가 감도는 '신작' 들은 발표 당시 과소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현대에 와서 그의 3~40년대 작품은, 화려한 전작에서 볼 수 없던 사실성과 압도적인 희망, 의지가 깃들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직접 미군에 입대해 세계의 비극을 몸소 경험하고 이를 작품에 녹여 냈기 때문인 것 같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스콧 피츠제럴드의 후기 단편소설 8편과 에세이 5편을 직접 발굴, 편집해 선보였다. F. 스콧 피츠제럴드가 쓰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편집후기 등이 실린 '어느 작가의 오후-제럴드 후기 작품집'이 그것.

책은 피츠제럴드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며 남긴 미완의 소설 '라스트 타이쿤'을 보며, 하루키의 소회를 편집자의 주처럼 들려준다. 하루키는 피츠제럴드의 말년을 보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과 동일시한다. '태엽 감는 새 연대기'를 집필하던 자신과 동일한 나이에 생을 마감한 젊은 작가의 심경에 공감한다.

하루키는 펜을 쥐고 괴로워하던 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프로 작가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역작을 만들어 냈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뒤결에 묻혀 있던 '어두운 역작' 들을 발굴해 세상에 소개한다.

<인플루엔셜·1만68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수 목 장

또 다른 만남,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